

# 매력도 분석에 의한 관광지역 설정

김 상 한 \*

I. 서론	1. 관광매력물
II. 관광자원의 분류	2. 관광시설
1. 대구근교권의 관광지	IV. 관광지역의 설정
2. 관광매력 요인	1. 매력도의 지역적 분포
III. 관광자원의 평가	2. 칠곡군의 관광지
	V. 결론

## I. 서론

본 연구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관광매력도와 관련하여 평가하고 수 개의 잠재적 관광지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개개의 지역은 성격이나 기능에 있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형, 식생, 기후 등의 자연적 요인과 문화재, 생활양식, 사회형태, 산업 등의 인문적 요인은 그 지역의 관광매력도에 여러 방식으로 기여한다. 관광매력물 연구는 대체로 지역적 특성의 분석에서 출발한다 (Vedenin & Miroshnichenko, 1970; Ritchie & Zins, 1978; Ferrario, 1980; Gunn, 1994). 즉, 단위지역별로 관광매력물의 목록을 작성한 뒤, 일련의 관광매력물이 특정한 관광활동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따라 평점을 매겨 지역의 관광잠재력을 평가한다.

한편 개개 관광매력물의 상대적 중요성은 관광객의 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것이 관광자원인가? 그것은 얼마나 독특한가? 주변의 다른 매력물과 결합하여 어느

\* 경북과학대학 교수, 본 학회 정회원

정도로 만족스런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관광객의 주관적 평가에 달려있다. 이 경우, 최선의 방법은 잠재 또는 실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Piperoglou, 1966). 또는 설문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수반되므로, 관광관련 전문가 또는 관광안내서로부터 관광객 선호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Gearing, Swart & Var, 1974; Var, Beck & Loftus, 1977). 이러한 간접적 방법은 자료수집의 저렴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때 관광객의 선호 정도에 따라 일련의 관광매력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광자원을 평가한다.

이들 상이한 방법은 각각 공급과 수요의 분석을 의미한다. 지역적 특성의 분석은 관광매력물을 질적 양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공급의 측면을 밝혀준다. 다른 한편, 관광객 선호의 분석은 수요의 측면에 대한 것이다. 관광매력물 연구는 이들 개개의 방법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광매력도를 산출하기도 한다 (Ferrario, 1979a, 1979b).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근교의 칠곡군을 대상으로 그 지역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관광매력도가 높은 관광지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칠곡군의 외곽지역은 2개의 도립공원, 지정 및 신규의 관광지를 비롯하여 많은 잠재적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 칠곡군은 인구 9만명의 수준인데 반해, 그 양단에 연접하는 대구광역시와 구미시는 각각 249만명과 31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 대도시는 칠곡군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다. 인근 대도시의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칠곡군은 외곽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균형된 지역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특성의 분석은 관광지역의 설정에 신속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이점도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별 관광매력물 목록의 작성을 우선으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칠곡군 외(1999)의 관광자원 조사에 의한 것이다. 이 조사는 지형도(1:50,000), 식생도, 칠곡군지(칠곡군, 1997), 문화유적총람(계명대학교, 1997), 전화번화부 및 야외답사 등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의 관광자원 목록이 작성되었을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차적 목적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관광자원의 분류이다. 대구근교권과 칠곡군의 주요 관광지를 살펴보고, 관광자원을 12개 항목으로 분류한 뒤, 이를 다시 4개 요인과 2개 유형으로 대별한다. 둘째로, 평가기준에 준거하여 각 요인별로 단위지역의 관광매력도를 측정한다. 단위지역은 최소행정단위인 리(73개)로 한다. 단위지역의 관광자원은 야외 레크리에이션이나 관광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단위지역별로 집계된 관광매력도에 의거하여 수 개의 잠재적 관광지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 II. 관광자원의 분류

### 1. 대구근교권의 관광지

관광지는 연구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Clawson(1960)은 자원의 입지, 종류, 이용시기, 활동유형 등에 따라 이용자중심형, 자원중심형 그리고 중간형으로 3구분하였다. 칠곡군은 대도시 근교에 인접하고 있다. 북서쪽으로는 구미시와 김천시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길게 연속되어 있다. 이들 도시와 그 주변의 5개 군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근교권을 형성한다. 대도시에 인접하는 입지적 특성은 칠곡군의 관광지가 이용자중심형이나 자원중심형보다는 중간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구근교권에서 도립공원은 관광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표1>. 팔공산도립공원은 대구광역시의 북단에서 칠곡군으로 동서로 뻗어 있다. 그 면적은 122.1 평방km이며, 이는 가야산국립공원의 80.2 평방km보다도 훨씬 넓은 것이다. 금오산도립공원은 구미시의 남서단에서 칠곡군에 걸쳐 있는 37.9 평방km의 자연공원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1970년에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칠곡군은 2개의 도립공원을 끼고 있어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양호한 관광잠재력을 가진다. 칠곡군에 걸쳐 있는 팔공산과 금오산의 2개 도립공원과 군내의 유학산 지구를 포함하면, 그 면적이 모두 164 평방km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팔공산, 비슬산, 약산온천을 포함하여 135 평방km이고, 군위군은 팔공산과 부계지구를 포함하여 123 평방km이다. 그리고 성주군은 가야산, 신계, 성주호를 포함하여 83 평방km이며, 구미시는 금오산과 송곡을 포함하여 39 평방km에 불과하다. 칠곡군의 관광지는 팔공산 또는 금오산을 끼고 있는 다른 어느 시군의 경우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칠곡군의 주요 관광매력물은 팔공산의 가산산성, 유학산 그리고 금오산의 금오동천 등이다. 가산산성은 영남 내륙의 군사적 요지에 1640년(조선 인조18년)에 축조된 3층의 석성이다. 산성 일대는 완만한 고원분지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 칠곡도호부가 설치되어 약 180년간 유지되기도 했다. 당시 내성일대는 울창한 삼림으로 덮혀 있어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계곡의 물은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였다고 한다. 칠곡이란 명칭도 이러한 '7개의 계곡' 즉 칠곡(七谷 > 漆谷)에서 비롯된다. 가산산성은 현재 사적 제 2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학산은 가산과 더불어 팔공산피의 서쪽 끝에 있는 화강암 산지이다. 인근의 소학산, 황학산과 더불어 경북의 3학산에 속한다. 정상부에는 암벽이 병풍을 이루며, 이곳의 선질바위는 산정의 갈대밭과 함께 이 산의 명소이다. 또한 유학산은 6.25의 격전지로도 유명하다. 인근의 다부동과 낙동강변에는 전적기념관이 있다.

금오동천은 금오산(976m)의 남쪽 계곡을 일컫는다. 금오산은 원래 대혈사, 보봉사, 동양사, 약사암, 금종사, 보제사 등 많은 사찰을 가진 불교유적지였다. 또한 산성을 쌓아 외적을 막던 요새이기도 했다. 금오산정은 분지이며 거기에는 한때 성안마을이 위치하였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계곡이 끝나는 지점까지를 금오동천이라고 한다. 금오동천은 풍부한 계곡물, 갖가지 모양의 바위, 울창한 숲 때문에 피서지로 이름나 있다.

<표 1> 대구근교권의 관광지

대구근교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관광지	신규관광지
	가야산 80.2	팔공산 122.1 금오산 37.9	비슬산 13.0 운문산 16.2	가산산성 0.4 영천치산 0.3 청도온천 0.5 용암온천 0.9 김천온천 1.4 경산온천 0.3	유학산 3.6 보현산 1.8 임고삼매 0.1 운문담 1.9 당호 0.3 덕곡 0.8 다산 0.2 신계 1.4 백운 1.5 성주호 1.3 부계 0.7 약산온천 0.3 송곡 1.0
288.1(100%)	80.2(28%)	160.0(56%)	29.2(10%)	3.8(1%)	14.9(5%)

▶ 주) 밑줄친 부분은 칠곡군 관련

## 2. 관광매력 요인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대상물이다. 이것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 관광자원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그 핵심부분은 자연과 사회역사이다. 생성과정에 의한 분류는 관광자원을 크게 2구분하고 있다. 즉, 지형, 동식물, 기후 등의 자연자원과 문화재, 생활양식, 사회형태, 산업 등의 인문자원이다. 이러한 자연적, 인문적 요소들을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관광자원과 무형관광자원으로 양분하기도 한다(이후석, 1999).

관광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숙박 및 외식 시설, 쇼핑시설,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등도 관광자원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관광시설은 관광활동을 보조하는 성격이 짙고, 그 자체로서는 관광객을 유인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없이 다양한 관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관광시설은 지역의 관광자원 평가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자원의 항목은 연구지역에 따라 다양하다<표 2>. 터키의 경우는 다양한 관광 매력물과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있다(Gearing et al., 197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연 관광자원은 자연경관과 식생 외에도 해변, 사냥, 야생생물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인문관광자원도 고고학, 토착 생활양식, 민속, 광산 등 다양한 항목을 가진다(Ferrario, 1979a, 1979b). 하와이는 스포츠시설과 건강휴양시설이 세분되어 있다(Liu & Auyong, 1987). 이처럼 관광자원의 항목은 연구지역에 따라 또는 관광객 선호의 차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칠곡군은 매우 작은 지역이므로 관광자원의 항목이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곡군의 관광자원은 12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련의 항목들은 자연, 사회역사, 위락쇼핑, 외식숙박 등 4개 요인으로 대별된다<표 3>. 자연과 사회역사 요인은 핵심적 관광대상인 관광매력물에 해당되는 반면, 위락쇼핑과 외식숙박은 보조적 성격의 관광시설에 속하는 것이다. 개개의 요인들은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각각 동일한 수(3개)의 항목을 갖는다.

자연요인(A)은 지형, 수계, 식생 등을 포함하며, 사회역사요인(B)은 유적, 축제, 사찰 등을 일컫는다. 이들 두 요인은 서로 다른 성격의 관광매력물을 일컫지만, 일단 손상되면 대체로 재생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관광개발계획이 보전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경상북도, 1996; 칠곡군, 1996). 이에 반해 위락쇼핑(C)과 외식숙박(D)의 두 요인에 속하는 항목은 재생가능한 성격의 자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위락쇼핑 시설은 건강휴양, 야간위락, 쇼핑을 포함하며, 외식숙박 시설은 외식, 숙박 및 기반시설을 지칭한다.

<표 2> 관광자원의 분류

	Gearing et al.	Ferrario	Liu & Auyong
적용지역	터 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와이
항목	1. 지형.동식물 2. 기후 3. 건축 4. 축제 및 경기 5. 민속 6. 전시회 7. 주민태도 8. 유적 9. 종교 10.역사적 명소 11.스포츠 시설 12.교육적 시설 13.건강휴양시설 14.오락유흥시설 15.쇼핑시설 16.기반시설 17.숙박외식	1. 해변 2. 야외활동 3. 해양스포츠 4. 스포츠 시설 5. 사냥 6. 자연경관 7. 식생 8. 야생생물 9. 동물원 10.유적 11.고고학 12.토착생활양식 13.여타의 토착민 14.도시관광 및 쇼핑 15.민속 16.기술수준 17.광산 18.온천 19.유흥 20.경기관람 21.카지노	1. 지형. 동식물 2. 기후 3. 축제, 각종 이벤트 4. 주민태도 5. 민속 6. 유적 7. 종교 8. 역사적 명소 9. 육상스포츠시설 10.해상스포츠시설 11.건강.휴양시설 12.기반시설 13.숙박.외식 14.쇼핑시설 15.오락.유흥시설 16.교육적 시설

<표3> 칠곡군의 관광자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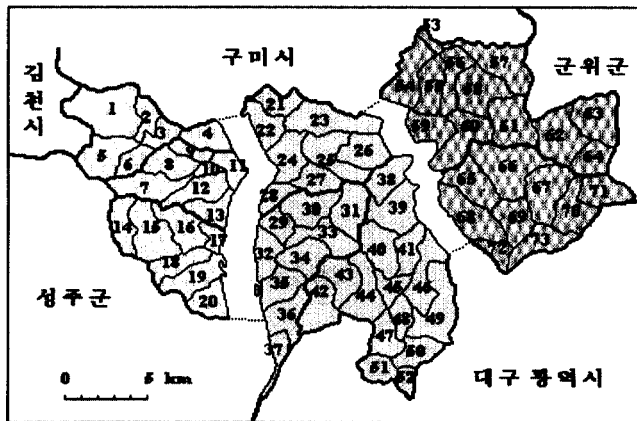
관광자원	요 인	항 목	자원의 성격
관광매력물	A 자연	지형, 수계, 식생	(대체로 재생불가)
	B 사회역사	유적, 축제, 사찰	(대체로 재생불가)
관광시설	C 위락쇼핑	건강휴양, 야간위락, 쇼핑	(재생가능)
	D 외식숙박	외식,숙박,기반시설	(재생가능)

### III. 관광자원의 평가

관광자원의 일반적 특성중의 하나는 부동성이다. 거의 모든 관광매력물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관광자원을 항목별뿐만 아니라 단위 지역 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위지역을 최소행정단위인 리로 하였다. 또한 관광자원은 그 위치 고정성 때문에 주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 평가는 여러 항목이나 요인에 걸쳐 실시하되 반드시 종합할 필요가 있다.

칠곡군은 73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기술의 편의상, 중심지의 위치와 지형과 관련하여 칠곡군을 서부, 중부, 동부의 3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서부는 낙동강 서안에 있는 북삼, 약목, 가산의 3개 면이며, 모두 20개 리를 포함한다. 낙동강 동안의 왜관, 석적, 지천의 3개 읍면은 중부에 해당되며, 모두 32개 리가 있다. 서부와 동부는 단순히 낙동강에 의해 양분되며, 대부분의 지역은 구릉지와 평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동쪽의 동명면과 가산면은 동부에 속하며, 21개 리를 포함한다. 동부는 주로 팔공산계의 산지로 되어 있어, 서부나 중부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림 1) 칠곡군의 단위지역



- <서 부> (북삼면) 1.송오 2.인평 3.울 4.오평 5.보손 6.어로, (약목면) 7.남계 8.북성 9.교 10.동안  
 11.덕산 12.무림 13.관호, (가산면) 14.각산 15.불산 16.평북 17.죽전 18.영 19.행정 20.노석,  
 <중 부> (석적면) 21.중 22.남울 23.성곡 24.포남 25.망정 26.도개 27.반계 28.중지, (왜관읍) 29.석전

30.아곡 31.봉계 32.왜관 33.매원 34.삼청 35.금산 36.낙산 37.금남, (지천면) 38.황학 39.백운 40.달서  
 41.창평 42.금호 43.연화 44.송정 45. 신 46.심천 47.영오 48.덕산 49.낙산 50.연호 51.오산 52.용산,  
 <동 부>(가산면) 53.심곡 54.학하 55.학상 56.하관 57.석우 58.천평 59.학산 60.다부 61.금화 62.가산 63.용수  
 64.옹추, (동명면) 65.가천 66.학명 67.남원 68.송산 69.금암 70.기성 71.특명 72.봉암 73.구덕

개개 단위지역의 관광자원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인별 각 항목이 특정한 관광목적(야외 레크리에이션 또는 관광)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따라 단위지역에 평점을 매길 수 있다. 적합 또는 부적합의 2단계로 할 수도 있고, 적합 보통 부적합의 3단계로 할 수도 있다. 또는 보다 상세하게 5단계나 10단계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지역은 1개 군의 좁은 면적이고, 자연적 인문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초기단계의 연구에서는 3단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적합성이 높음, 보통, 낮음의 각 단계에 대해 3점, 2점, 1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표 4와 표 6>.

<표 4> 관광매력물의 평가기준

적합성	점수	자연 요인 (A)			사회역사 요인 (B)		
		지형	수계	식생	유적	축제	사찰
높음	3	산지	대하천	혼합림 또는 낙엽수	3개소이상	3회이상	3개소이상
보통	2	구릉지	소하천과 저수지	침엽수	2	2	2
낮음	1	평지	소하천 또는 저수지	나지	1이하	1이하	1이하

### 1. 관광매력물

자연 요인(A)은 지형, 수계, 식생으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은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갖는 적합성에 따라 1-3점이 부여된다<표 4>. 먼저 지형은 산지, 계곡, 지질 등을 일컫는다. 산지나 계곡은 산간 휴양지, 등산, 행글라이딩, 자연공원, 풍치지역, 동계스포츠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는 고도가 높을수록 선호된다. 따라서 어떤 단위지역에 소재하는 산지가 고도 600m이상이면 3점, 300-600m이면 2점, 그리고 300m미만이면 1점을 각각 부여한다.

수계는 하천, 호수, 저수지, 폭포 등을 포함한다. 수변 휴양지, 캠프장, 공원, 낚시터, 보팅, 유람선, 피크닉장, 수변 경관지, 수변 축제 등의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큰

호수나 하천은 대규모적인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낙동강과 13개의 지류 그리고 수 십 개의 저수지에 대하여 그 유무나 크기에 따라 평가하였다. 대하천(낙동강)에 면해 있으면, 그 단위지역은 3점을 얻는다. 하천은 중소기업이지만 주변에 저수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2점이다.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을 가지면 야외레크리에이션의 기회가 그만큼 제한되므로 1점을 부여한다.

식생도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그 개발 형태는 자연공원, 캠프장, 단풍지구, 풍치지구, 야생생물 서식지, 휴가촌 등이다. 대부분의 야외활동은 봄, 여름, 가을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있어서 혼합림 또는 낙엽수림은 미기후와 위생조건에 양호한 영향을 주므로(Vedenin & Miroshnichenko, 1970), 3점을 부여한다. 침엽수림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미기후 및 위생상태에 있어서 덜 적합하다(2점). 빈약한 수림이나 나지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좋은 조건이 되지 않는 못한다(1점).

개개 단위지역의 자연 요인을 산지고도, 하천크기, 임상과 관련하여 평가한 뒤 종합한 결과는 (그림 2.a)와 같다. 1-3점의 낮은 점수는 8개소에 불과하다. 이들은 곡간평야지대에 위치하며, 수변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삼림의 피복도 빈약하다. 그러나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은 양호한 매력도를 갖는다. 7-9점의 높은 점수는 대부분의 동부 그리고 중부, 서부의 일부에서 발견된다. 동부의 동명면과 가산면, 그리고 중부 및 서부의 북쪽(석적면, 북삼면)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즉, 칠곡군은 자연적 매력에 관한 한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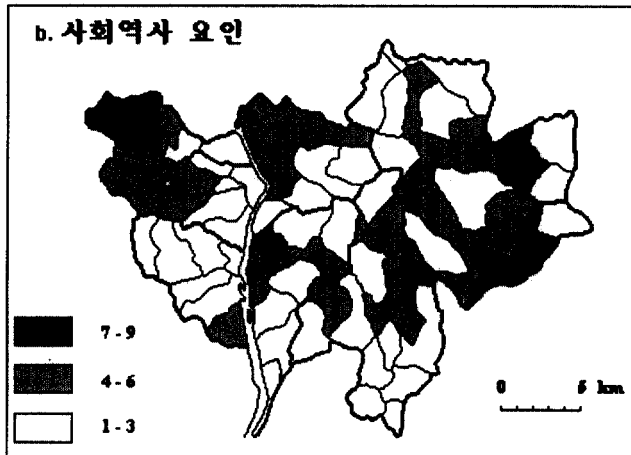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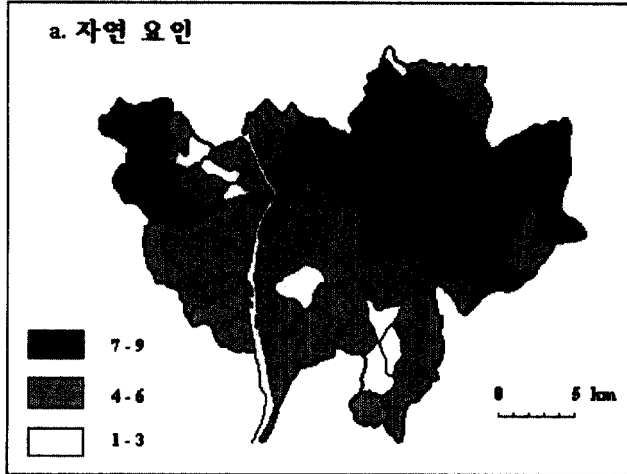
사회역사 요인(B)은 유적, 축제, 사찰의 3항목을 포함한다. 이는 선사유적 박물관, 발굴현장, 선사유적공원, 사적지, 건축물, 역사박물관, 역사공원, 문화센터 등의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단위지역은 각 항목에 대해 수 또는 빈도가 셋 이상이면 3점, 둘이면, 2점, 하나 이하이면 1점을 갖는다<표 4>. 따라서 유적, 축제, 사찰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사회역사 요인의 최고점은 9점이고 최저는 3점이다.

사회역사 요인은 비교적 한정된 지역에서 양호한 매력도를 보였다. 73개 단위지역의 사회역사적 매력도는 (그림 2.b)와 같다. 7-9점의 높은 점수는 중부의 석전, 서부의 송오 그리고 동부의 3개소 등 모두 5개소에 한정된다. 동부의 가산, 기성, 구덕 등 기성계곡 일대는 사회역사적 매력물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집중지역의 주변으로 차하(4-6점) 평점의 단위지역이 분산되어 있다. 중부에서는 석전에 인접하여 2개소(왜관, 매원)가 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석적면의 중, 남울, 포남, 성곡과 남쪽으로 지천면의 신, 창평, 심천, 백운과 연화가 있다. 서부에서는 송오 주변의 5개소(보손, 어로, 인평, 북성, 남계)와 남쪽 끝의 노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매력도를 갖는다. 동부에서도 가산 부근의 3개소(금화, 다부, 하판)가 있고, 구덕과 기성 부근의 4개소(가천, 금암, 봉암, 남원)가 높은 점수이다. 나머지 45개소는

3점이하로서 사회역사적 매력도가 낮다.

(그림 2) 칠곡군의 관광매력도 (자연과 사회역사)



관광매력물은 위치고정성 때문에 주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성계곡(구덕, 기성)의 풍부한 유적은 그 주변의 숲, 계곡과 같은 훌륭한 자연적 조건에 의해 관광지로서 더욱 큰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상승효과는 자연(A)과 사회역사(B)요인의 결합에 의해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표 5>. 자연과 사회역사 요인 모두에서 높은 점수(14점 이상)를 얻고 있는 지역은 이미 관광지로서 이름있는 곳이다. 즉, 기성계

곡 외에도 가산산성, 금오동천, 그리고 약목면의 신유장군유적지 등이 있다. 차하의 점수를 보이지만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동부에서는 금화계곡 일대, 서부에서는 금오동천 주변의 보손과 어로, 그리고 중부에서는 낙동강변의 석전, 왜관, 포남, 성곡 등을 들 수 있다.

<표 5> 관광 매력도: 자연과 사회역사

단위지역	자연(A)	사회역사(B)	(A + B)	특 징
구덕 E	7	7	14	<기성계곡>
가산 E	7	7	14	<가산산성>
승오 W	7	7	14	<금오동천>
남계 W	8	6	14	<신유장군유적지>
석전 C	6	7	13	
기성 E	6	7	13	
다부 E	7	6	13	
금화 E	8	5	13	자연 탁월
하판 E	8	4	12	자연 탁월
금암 E	7	5	12	
가천 E	7	5	12	
보손 W	7	5	12	
어로 W	7	5	12	
남원 E	7	4	11	
왜관 C	5	6	11	
성곡 C	7	4	11	자연 탁월
포남 C	7	4	11	자연 탁월
백운 C	7	4	11	자연 탁월

C: 중부 E: 동부 W: 서부

## 2. 관광시설

위락쇼핑 요인(C)은 스포츠 및 건강휴양, 야간위락 그리고 쇼핑의 3개 항목을 포함

한다. 항목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위지역내에 관련업체의 수가 많으면 3점, 보통이면 2점, 그리고 적으면 1점을 각각 부여한다<표 6>. 3개 항목의 각각이 갖는 매력도의 범위는 1-3점이므로, 단위지역의 위락쇼핑 요인은 최고 9점, 최저 3점이 된다. 73개 단위지역의 매력도는 (그림 3.a)와 같다.

위락쇼핑 요인은 서비스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극히 제한된 수의 단위지역에서만 높은 매력도를 보인다. 중부에서는 왜관과 석전만이 7-9점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인접하여 있는 관호, 매원, 금산은 차하의 높은 점수이다. 북쪽의 도개는 왜관 중심지에서 다소 격리되어 있으나, 최근 온천개발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매력도를 갖고 있다. 남쪽의 지천면은 휴양, 위락, 쇼핑 등의 서비스 기능이 매우 낮다.

이러한 장소적 편중현상은 서부와 동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부에서는 인평, 북성의 2개소가 높은 수준이고, 그 주변의 송오, 남계도 양호하다. 그러나, 남쪽의 기산면에서는 어떠한 위락쇼핑의 중심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동부에서는 금암에서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일 뿐이며, 다른 어떠한 중심지도 없다. 요컨대 관광시설 중에서 위락쇼핑 요인은 주로 낙동강 양안의 면 중심지에 집중하고 있다.

외식숙박 요인(D)은 외식업체와 숙박업체 그리고 기반시설을 일컫는다. 먼저 기반시설을 제외한 외식과 숙박의 경우, 단위지역 내에 관련업체의 수가 많으면 3점, 보통이면 2점, 그리고 적으면 1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단위지역은 최고 6점, 최저 2점을 갖게 된다. 73개 단위지역의 매력도는 (그림 3.b)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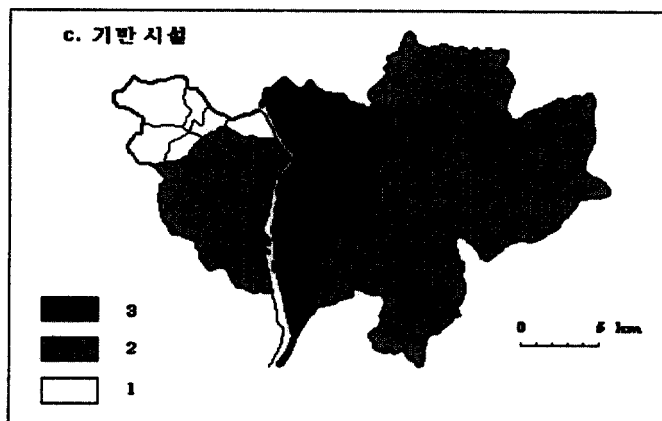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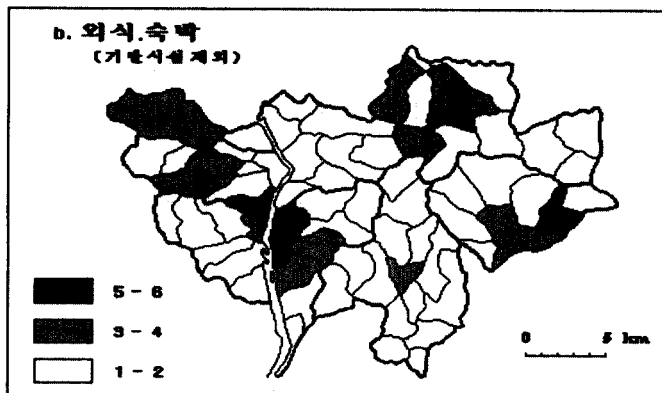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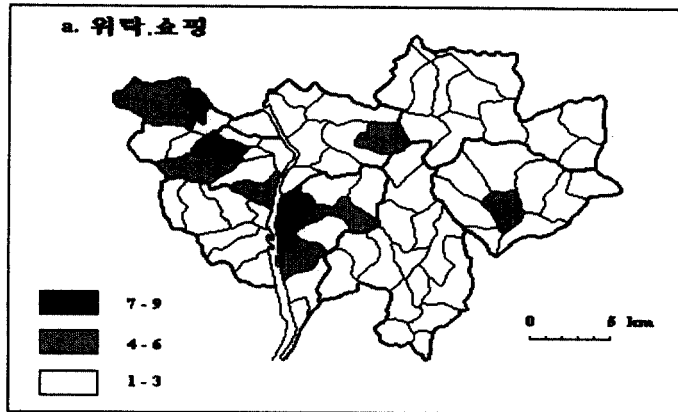
<표 6> 관광시설의 평가기준

(단위: 업체수)

적합성	점수	위락쇼핑 요인(C)			외식숙박 요인(D)		
		휴양	위락	쇼핑	외식	숙박	도로밀도
높음	3	5-	21-	9-	21-	5-	0.6-
보통	2	3-4	11-20	5-	11-20	3-5	0.4-0.6
낮음	1	1-2	-10	-4	-10	- 2	-0.4(km/sq.km)

외식숙박업체는 위락쇼핑 요인과 서로 중첩되거나 또는 다소 널리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부에서는 왜관과 석전이 가장 높은 매력도를 가지며, 그 주변의 금산과 삼청도 높은 점수를 가진다. 그 이외 지역(석적면, 지천면)의 외식숙박기능은 위락쇼핑과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하다. 서부에서는 7개소가 외식숙박 부문에서 높은 매력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왜관 중심지에서 낙동강 바로 건너에 있는 관호와 죽전이 가장 두드러진다. 북쪽으로는 북삼면의 송오, 인평, 울, 약목면의 남계와 북성이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반면에 남쪽의 기산면은 죽전을 제외한 전지역이 외식숙박 기능에 있어서 역시 저조하다.

(그림 3) 칠곡군의 관광매력도(위락쇼핑과 외식숙박)



동부에서 외식숙박업체의 분포는 위락쇼핑 요인의 경우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특이한 것은 교통로를 따라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동명면의 경우 외식숙박업체는 지방도 908호선을 따라 기성, 구덕, 금암의 일대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매력도를 보였다. 한편 가산면에서는 국도 5호선과 지방도 904호선을 따라 학산, 천평, 하판, 학하에서 높은 매력도를 보인다. 요컨대 외식숙박업체는 중부와 서부에서는 주로 면중심지에 집중하는 반면, 동부에서는 주요 도로를 따라 확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반시설로서는 교통로, 수도, 전기, 경찰, 보건, 통신 등이 있다.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는 칠곡군에서 보편적인 형태의 교통로이다. 본 연구는 도로(밀도)를 기반시설로서 고려하였다. 외식과 숙박의 항목과는 상이하게도, 도로밀도는 자료의 제한으로 면 단위로 측정되었다. 중부의 석적면과 왜관읍이 높은 도로밀도를 갖는다(그림 3.c). 서부의 북삼면이 가장 낮은 수준의 도로밀도를 가지며, 그외 지역은 중간 수준이다.

위락쇼핑과 숙박외식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의 관광시설은 주로 서비스 중심지에 입지한다. 특히 위락쇼핑의 경우는 왜관, 북성, 인평, 금암 등 면중심지에 입지하여 시장지향적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러나 외곽지역일지라도 유력한 관광매력물이 있는 곳에는 관광시설이 집중하고 있다. 동부의 경우, 기성계곡 일대의 자연, 산성, 사찰 등은 각종의 관광시설을 유인하고 있다. 중부에서도 개의 관광시설은 온천개발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외식숙박 요인에서 탁월성을 보인다<표 7>. 중부에서는 왜관 IC가 있는 삼청에서 탁월하다. 동부에서의 대표적인 예는 기성과 천평이다. 이곳의 외식숙박 요인의 발달은 인근의 가산산성과 금화계곡에 관련된 것이다. 서부의 경우는 낙동강변의 관호가 특히 외식숙박 요인에서 우세하다. 이러한 외식업체의 발달은 관광객이 주로 당일 또는 주말에 관광지를 이용하고, 체재하기보다는 경유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관광매력도: 위락쇼핑과 외식숙박

단위지역	위락쇼핑(C)	외식숙박(D)	(C + D)	특 징
왜관 C	9	9	18	
석전 C	7	8	15	
복성 W	8	6	14	
인평 W	8	5	13	위락쇼핑 탁월
기성 E	3	8	11	외식숙박 탁월
금암 E	5	6	11	
관호 W	4	7	11	외식숙박 탁월
남계 W	5	5	10	
금산 C	4	6	10	
도개 C	5	5	10	
매원 C	4	5	9	
삼청 C	3	6	9	외식숙박 탁월
천평 E	3	6	9	외식숙박 탁월
송오 W	4	5	9	
신 C	3	5	8	
구덕 E	3	5	8	
학산 E	3	5	8	
하판 E	3	5	8	
학하 E	3	5	8	
죽전 W	3	5	8	
울 W	3	4	7	

C : 중부 E : 동부 W : 서부

#### IV. 관광지역의 설정

##### 1. 매력도의 지역적 분포

관광매력물은 관광자원의 핵심을 이루는 자연(A)과 사회역사(B) 요인의 결합을 일컫는다. 13-18점의 높은 매력도를 보이는 단위지역은 8개소이다<표8>. 동부의 가산,

구덕, 기성, 금화, 다부 등의 5개소, 서부의 남계와 송오의 2개소, 그리고 중부의 석전이다. 이들은 5개의 상이한 지역으로 대별된다(그림 4). 동부의 경우, 가산에서부터 구덕, 기성에 이르는 기성계곡 일대와 금화, 다부에 이르는 금화계곡 일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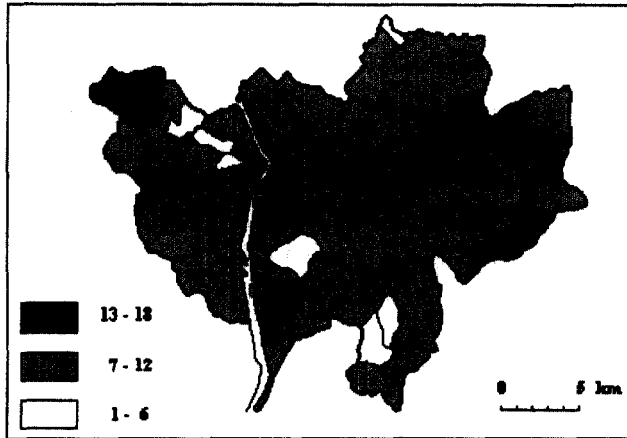
서부에서는 금오동천이 있는 송오와 서진산 계곡이 전개되어 있는 남계가 높은 매력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부의 경우는 낙동강변의 석전만이 유일하게 자연적 및 사회역사적으로 높은 매력도를 보일 뿐이다. 이처럼 관광매력물은 주로 가산과 금오산의 계곡과 낙동강변 일대에서 높은 수준의 매력도를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표 8> 칠곡군의 관광매력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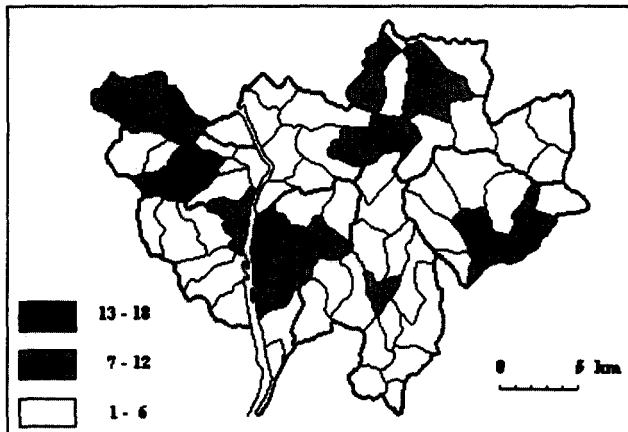
순위	관광매력물(AB)	관광시설(CD)	관광자원(AB+CD)
1	가산 14 E	왜관 18 C	왜관 29 C
2	구덕 14 E	석전 15 C	석전 28 C
3	남계 14 W	복성 14 W	남계 24 W
4	송오 14 W	인평 13 W	복성 23 W
5	석전 13 C	관호 11 W	송오 23 W
6	기성 13 E	금암 11 E	기성 23 E
7	금화 13 E	기성 10 E	금암 23 E
8	다부 13 E	도개 10 C	구덕 22 E
9	금암 12 E	남계 10 W	가산 21 E
10	하판 12 E	송오 9 W	인평 21 W
11	가천 12 E	천평 9 E	관호 20 W
12	왜관 11 C	매원 9 C	도개 20 C
13	포남 11 C	포남 8 C	하판 20 E
14	성곡 11 C	성곡 8 C	다부 20 E
15	도개 10 C	구덕 8 E	금화 20 E
16	매원 10 C	하판 8 E	천평 19 E
17	천평 10 E	가산 7 E	가천 19 E
18	복성 9 W	다부 7 E	포남 19 C
19	관호 9 W	금화 7 E	성곡 19 C
20	인평 9 W	가천 7 E	매원 19 C

C: 중부 E: 동부 W: 서부

(그림 4) 칠곡군의 관광매력도(관광매력물의 경우)



(그림 5) 칠곡군의 관광매력도(관광시설의 경우)



관광시설은 위락쇼핑(C)과 의식숙박(D) 요인의 결합을 의미한다. 높은 매력도를 보이는 곳은 모두 5개 지역이다. 즉, 왜관 주변의 낙동강변, 서부의 송오-인평과 남계-북성, 그리고 동부의 기성계곡 일대와 유학산 일대이다. <표 8>은 왜관, 석전, 북성, 인평 등 4개소만이 13-18점의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왜관 중심지 주변으로 관호, 죽전, 매원, 삼청, 금산도 양호한 수준에 있다(그림 5). 남쪽의 신리와 북쪽의 도개는 왜관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다. 신리는 지천면의 중심지에 해당되고, 특히 도개는 온천개발과 더불어 최근에 크게 부상하고 있다.

서부에서는 복성과 인평의 주변으로 남계, 승오, 울 등도 양호한 수준에 있다. 관광매력물에서는 남계와 승오가 가장 높은 평점이었지만, 관광시설은 인근의 복성과 인평이 더 높은 평점이다. 즉, 관광매력물과 관광시설이 공간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부의 경우, 동명면에서는 관광매력물의 매력도가 높았던 기성계곡 일대(기성, 구덕, 금암, 봉암)에 관광시설도 역시 집중하고 있다. 한편 가산면의 경우, 관광매력물은 금화계곡 일대에서 높은 매력도를 보였으나, 관광시설은 바로 인접한 천평, 하판, 학산, 학하 일대에서는 더 높은 수준이다.

관광시설은 관광활동을 보조하는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그 지역적 분포가 관광매력물과 일치하거나 또는 인접한다. 이들 두 유형의 관광자원이 중첩 또는 혼재하고 있는 곳은 낙동강변과 기성계곡 일대이다. 관광지 개발의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중첩되지는 않지만 인접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서부의 금오동천 일대와 약목 일대이다. 이것은 팔공산도립공원의 금화계곡과 가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관광매력물과 관광시설은 기능상 또는 공간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들을 동일한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넓은 의미의 관광지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칠곡군의 관광지역

관광지역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이어야 한다. 하나의 특정한 관광매력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은 극히 제한된 관광객층을 흡수할 뿐이며, 관광객의 체재시간도 매우 짧을 것이다. 낮은 이용수준은 추가의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해, 기존의 관광시설마저도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각종의 관광매력물과 관광시설이 상호의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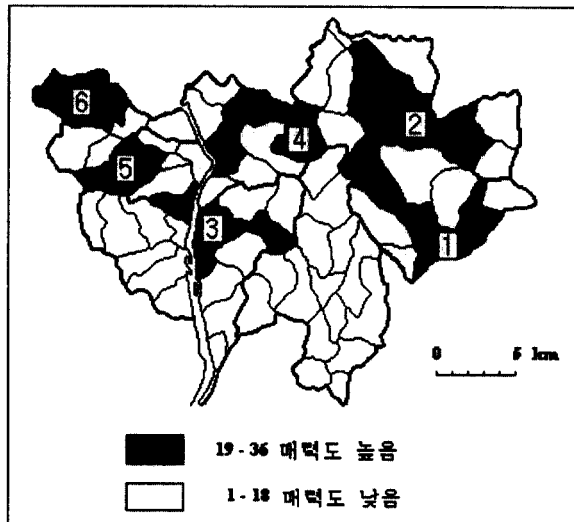
단위지역이 갖는 관광매력물과 관광시설의 매력도를 종합하면 그러한 관광지역의 설정이 가능하다. 동부에서는 9개소가 높은 매력도를 보였다(그림 6). 이들은 2개의 지역으로 대별된다<표 9>. 동명과 금화 지역은 가산에서 뻗어 나온 별개의 계곡에 위치한다.

첫째, 동명 지역은 가천, 금암, 구덕, 기성, 가산의 5개소를 포함한다. 이들은 국도 5호선 또는 지방도 908호가 지나가는 계곡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특색을 갖는다. 동명지역은 칠곡군에서 가장 풍부한 관광매력물을 가진 지역이다. 또한 금암,

구덕, 기성에는 위락 및 외식숙박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둘째는 금화 지역이다. 다부, 금화, 천평 하판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역은 국도 5호선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금화지역은 풍부한 매력물을 가지나 그에 비해 관광시설의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동명지역과 금화지역의 공간적 통합이 더욱 진행된다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하나의 관광지역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부에서는 6개소가 높은 매력도를 보였다. 이들은 분포양상으로 보아 왜관과 석적의 2개 지역으로 집약된다. 첫째, 왜관 지역은 왜관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석전, 매원, 관호를 포함하는 낙동강 일대이다. 관호는 낙동강 건너편 즉 서부에 위치하지만, 왜관 중심지의 영향권에 속한다. 왜관지역은 특히 사회역사요인과 관광시설에서 높은 매력도를 보인다. 왜관은 칠곡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축제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림 6) 칠곡군의 관광매력도(종합)



1. 동명지역 2. 금화지역 3. 왜관지역 4. 석적지역 5. 약목지역 6. 북삼지역

둘째는 석적 지역이다. 석적면의 도개, 성곡 및 포남을 포함하는 숲데미산 일대로 높은 수준의 관광 매력도를 갖는다. 주로 자연요인에서 높은 평점을 가지며, 도개은천을 비롯하여 최근 관광시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서부에서 관호를 제외한 4개소는 북삼과 약목의 2개 지역으로 요약된다. 첫째, 북삼지역은 금오동천이 있는 송오와 인평을 포함한다. 자연 및 사회역사의 풍부한 관광매력물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시설의 수준도 대체로 양호한 단계이다. 둘째는 약목지역이다. 신유장군 유적지가 있는 북성과 인근의 남계를 포함한다. 관광매력물

중에서 주로 자연요인이 탁월하며 관광시설도 양호한 편이다. 북삼지역과 약목지역은 보손과 어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표 9> 칠곡군의 관광지역

지역	관광지역	매력도가 높은 리(里)	관광자원
동부	1. 동명 지역	금암, 구덕, 기성, 가산, 가천	가산, 기성계곡, 삼림(노거수), 동명지, 송림사, 가산산성, 고인돌, 정기시장
	2. 금화 지역	금화, 천평, 하판, 다부	금화계곡, 안동장씨재실, 성황당, 전적기념관, 고분군, 삼림(노거수), 금화지, 금곡사
중부	3. 왜관 지역	왜관, 석전, 매원, 관호	낙동강, 매원지, 목헌종택, 해은고택, 백포산성, 기념비, 나무고사리화석, 정기시장, 군민체육대회, 성베네딕도 수도원, 왜관인도교, 경북칸트리클럽
	4. 석적 지역	도개, 성곡(유학산), 포남	유학산, 낙동강, 삼림(노거수), 유학지, 도개온천, 전적기념관
서부	5. 북삼 지역	송오, 인평	금오산, 삼림(노거수), 금오동천선봉사 대각국사비, 정기시장
	6. 약목 지역	남계, 북성	서진산, 삼림(노거수), 남계지, 신유장군유적지, 고분군, 정기시장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근교의 칠곡군을 대상으로 그 지역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관광지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칠곡군은 대구근교권의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관광잠재력이 크다. 그 외곽에 2개의 도립공원을 끼고 있어 관광지의 면적에 있어서나 자원의 다양성에 있어서 탁월하다. 또한 인근에 대구와 구미 같은 대도시가 입지하고 있어서 당일 또는 주말관광의 시장도 넓은 편이다. 칠곡군은 그 외

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관광자원의 평가와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관광자원은 일반적으로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주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평가는 단위지역별로 여러 항목이나 요인에 걸쳐 실시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다. 단위지역은 최소행정단위인 리(73개)로 하였다. 그리고 관광자원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일련의 항목들은 자연, 사회역사, 위락쇼핑, 외식숙박 등 4개 요인으로 분류되고, 이것은 다시 2유형으로 대별되었다. 자연과 사회역사 요인은 관광매력물에 해당되며, 위락쇼핑과 외식숙박은 관광시설에 속한다. 관광매력물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핵심적 관광대상이라면, 관광시설은 그들의 관광활동을 쾌적하게 하는 보조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지역은 개개 관광자원이 야외 레크리에이션이나 관광에 적합한 정도에 따라 1-3점을 부여받는다.

칠곡군의 개개 지역은 다양한 관광매력물을 가지고 있다. 지형, 수계, 식생 등 자연 요인에 있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이 높은 수준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적, 축제, 사찰 등 사회역사 요인도 꽤 넓은 지역에 걸쳐 양호하며, 몇 개의 중심이 발견된다. 이처럼 사회역사적 매력물이 자연적 매력물과 일치 또는 인접하여 분포한다는 것은 관광지 개발에 좋은 조건이 된다. 칠곡군의 관광매력물은 5개의 상이한 지역에서 높은 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순위별로 보면, 기성계곡, 금오동천 일대, 약목 일대, 금화계곡, 그리고 왜관 부근의 낙동강변 일대이다. 다시말해 관광매력물은 주로 가산과 금오산의 계곡과 낙동강변 일대에서 높은 매력도를 보인다. 이 중에서 기성계곡은 상당히 개발되어 이미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도 조만간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시설은 주로 서비스 중심지에 입지한다. 특히 위락쇼핑의 경우는 왜관, 북성, 인평, 금암 등 면중심지에 입지하여 시장지향적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러나 외곽 지역일지라도 유력한 관광매력물이 있는 곳에는 관광시설들이 집중하고 있다. 동부의 기성계곡(산성과 사찰), 중부의 도개(온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외식숙박 요인, 특히 외식업체는 교통로를 따라 확산하는 경향이다. 이것은 관광객이 주로 당일 또는 주말에 관광지를 이용하고, 체재하기보다는 경유하는 성향 때문이다. 요컨대 관광시설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지역은 왜관 일대, 북삼면의 송오-인평 일대와 약목면의 남계-북성 일대, 그리고 동부의 기성계곡과 유학산 일대이다.

관광시설은 관광활동을 보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그 지역적 분포는 보통 관광매력물과 일치하거나 인접한다. 이들 두 유형의 관광자원이 중첩 또는 혼재하고 있는 곳은 낙동강변과 기성계곡 일대이다. 관광지 개발의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중첩되지는 않지만 인접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서부의 송오-

인평 일대와 남계-북성 일대이다. 이것은 팔공산도립공원의 금화계곡과 가산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관광매력물과 관광시설은 기능상 또는 공간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들을 동일한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넓은 의미의 관광지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부, 서부, 중부의 각각에 2개씩 있다. 동부의 두 지역은 가산 주변의 기성계곡과 금화계곡에 있는 동명지역과 금화지역이다. 동명지역은 칠곡군에서 가장 풍부한 관광매력물과 상당한 관광시설을 가진 지역이다. 금화지역은 풍부한 매력물을 가지나 관광시설의 수준은 그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이들 두 지역은 각각 지방도 908호선 또는 국도 5호선이 지나가는 계곡을 따라 연속적으로 발달해 있다. 앞으로 이 두 지역의 공간적 통합이 더욱 진행된다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하나의 관광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부에는 왜관지역과 석적지역이 있다. 왜관지역은 특히 사회역사요인과 관광시설에서 높은 매력도를 보인다. 석적 지역은 주로 자연요인에서 높은 평점을 가지며, 최근에 관광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서부에는 북삼지역과 약목지역이 있다. 북삼 지역은 자연 및 사회역사의 풍부한 관광매력물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시설의 수준도 대체로 양호한 단계이다. 약목지역은 관광매력물 중에서 주로 자연요인이 탁월하며 관광시설도 양호한 편이다.

지역적 특성의 분석은 관광자원 평가와 관광지역 설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광자원의 목록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분석과정도 단순하여 적용하기에 쉽다. 즉, 일련의 관광자원이 특정 관광활동에 적합한 정도에 따라 지역의 매력도를 측정하고, 관광매력물과 관광시설의 분포양상에 따라 관광지역을 설정할 수 있었다. 관광매력물의 매력도는 관광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하나의 참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며, 타 지역의 관광매력물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광객의 선호와도 별개이다. 따라서 보다 완벽한 관광자원 평가는 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관광객 선호의 분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경상북도 (1996) 대구근교권 관광개발계획 1997. 대구: 경상북도청
2. 계명대학교(1997) 97문화유적총람(V)--경상북도편. 대구: 계명대학교 박물관
3. 이광원 (1999) 관광자원론. 서울: 기문사

4. 이후석 (1999) *관광자원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5. 칠곡군 (1996) *칠곡군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1996-2005*. 경상북도 칠곡군: 명인출판
6. 칠곡군 (1997) *칠곡군지*.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합동인판사
7. 칠곡군.경북과학대학 향토문화연구소(1999) *칠곡군의 문화유산조사 및 문화진흥계획*. 대구: 신흥인쇄소
8. Clawson, M. (1960) *Land for Recre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9. Ferrario, F. (1979a) "The Evaluation of Tourist Resources: an Applied Methodology Part I." *Journal of Travel Research* 17(3) 18-22
10. Ferrario, F. (1979b) "The Evaluation of Tourist Resources: an Applied Methodology Part II." *Journal of Travel Research* 17(4) 24-30
11. Ferrario, F. (1980) "Tourist Potential and Resource Assessment" in Hawkins et al.(1980) pp. 311-320
12. Gearing, C.E., W.W. Swart, and T. Var (1974) "Establishing a Measure of Touristic Attractivenes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2 (4) 1-8
13. Gunn, C.A. (1994) *Tourism Planning: Basics, Concepts, Cases*. Washington, D.C.:Taylor & Francis
14. Hawkins, D.E., E.L. Shafer, and J.M. Rovelstad (1980)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Issues*. Washington, D.C.: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5. Liu, J.C. and J. Auyong (1987) "The Attractiveness of Hawaii Tourism." *Travel and Tourism: Thrive or Survive*. Salt Lake City: Travel Association, *Bureau of Economic Research*, Univ. of Utah
16. Piperoglou, J. (1966) "Identification and Definition of Regions in Greek Tourist Planning." *Papers of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18, pp. 169-176
17. Ritchie, J.B.R. and M. Zins(1978) "Culture as Determinant of the Attractiveness of a Tourism Reg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5 (2)
18. Var, T., R.A.D. Beck, and P. Loftus (1977) "Determination of Touristic Attractiveness of the Touristic Areas in British Columb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15 (3) 23-29
19. Vedenin, Yu. A. and N.N. Miroshnichenko (1970) "Evalu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 for Recreational Purposes." *Soviet Geography: Review and Translation* 11(3) 198-208